

2017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논술우수자 전형 문제 및 해설 (인문계열-오전)

※ 본 논술문제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광운대학교에 있으며,
시험 종료 후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학과(부)			
수험번호		성명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시험시간은 2시간(120분)입니다.
- 답안지 상의 모집단위, 성명,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검정색 볼펜”으로 정확히 기재 및 마킹(진하게)바랍니다.
- 답안 작성란은 “검정색 볼펜” 또는 “검정색 연필(샤프)”로 작성하십시오.
 ※ 검정색 이외(빨간색, 파란색 등) 사용 금지
 ※ 지우개,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 답안지에는 제목을 쓰지 마십시오.
- 답안과 관련 없는 표현이나 표시를 하지 마십시오.
- 답안지 1장 이내에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광운대학교
KwangWoon University

[문제1] 제시문 (가)의 ㉠와 제시문 (나)의 ㉡를 제시문 (다)의 **이러한 관점**으로 각각 비판하고, 제시문 (라)의 ㉢를 활용하여 제시문 (다)의 **이러한 관점**이 지닌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50점, 750±50자)

(가)

우리는 몇몇 특정한 사건들을 통해서 16세기의 항해자들이 얼마나 비타협적이고 폭력적이었는가를 헤아릴 수 있다. 서인도제도의 한 섬을 예로 들어보자. 1492년(콜럼버스가 처음으로 아메리카에 도착한 해)에 그 섬에는 약 10만 명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나는 동안 단 200여 명으로 감소되어 버렸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무엇보다 **㉠유럽인들이 지닌 원주민들에 대한 혐오**가 주요 원인이었다. 물론 천연두 같은 전염병이나 유럽인들의 강력한 무기에 의한 공격도 원주민들을 아주 없애다시피 한 주요 원인이었지만,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유럽인들이 원주민들을 대하는 인식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식민지 지배자들은 원주민들을 진짜 인간이라기보다는 동물이나 악마의 후예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자신들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의식 없이 그들을 학대하고 죽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서인도제도의 그 섬에서 원주민들의 문화는 거의 사라졌고 그 자리를 유럽인들의 문화가 메우게 되었다.

(나)

최근 A백화점에 어느 유명한 서양 조각가의 300억 원짜리 조각이 설치되었다. 100억~300억 원을 호가하는 그 조각가의 조각은 이외에도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다. **㉡외국 작가의 유명세** 때문에 세워진 이러한 작품들은 우리 시대 예술의 씩씩한 초상화이다. 외국 작가 작품은 수십, 수백억 원에 구입하면서 국내 작가의 작품은 흠대하는 세태가 안타깝다는 말이다. 자본 유입이 없는 국내 미술계는 생존 작가 중 순수 예술 작품이 1억 원을 넘는 조각가 한 사람 키워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닌가. 과연 외국 작가의 작품이 한국 작가의 작품보다 미적으로 탁월하고 작품적으로도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가. 자국 문화를 만드는 데는 고도의 감각과 지식이 필요하지만, 돈을 주고 외국 작품을 사오는 일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외국 문화 수입은 결국 우리 미술의 상대적 빈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우리 미술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요구된다.

(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윤리, 도덕, 가치 등을 인간 모두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그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고 확신한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행동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누구나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는 각각의 인간 집단이 처해 있는 특수한 환경과 상황에서 만들어지거나, 주변의 다른 집단과 교류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변화하고 축적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어떤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가 생겨난 특수한 사회적 상황이나 배경,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한 문화에 대한 평가는 그 문화 자체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들 간에 우열을 평가할 수는 없다. 오늘날처럼 문화 교류가 활발한 시대에는 **이러한 관점**으로 문화를 보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음 장 계속>

(라)

인도에는 ‘지참금 살인’이나 ‘사티(sati)’ 등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인간적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다. 지참금 살인이란 결혼과 동시에 시댁에 건네는 지참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부를 괴롭히다가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사티는 죽은 남편을 화장할 때 과부를 살아있는 채로 함께 태워 매장하는 힌두교의 오래된 관습이다. 인도판 순장인 사티에서는 집안의 압력에 못 이겨서 여성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인도 정부는 지참금 금지법과 사티 방지법을 제정하였지만, 아직도 관습적으로 지참금이 강요되고, 사티를 실행한 마을이 오히려 관광 명소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인도의 고유한 문화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는가? 무조건 다른 사회의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생명, 자유, 행복 등과 같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억압하는 문화 현상까지도 존중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문화까지도 용인하고 보호하려 해서는 안 된다.

<다음 장 계속>

[문제2] (다)의 (ㄱ)~(ㄷ)에 나타난 세 가지 경제 지표의 변화 추이를 비교·분석하여 제시문 (가)의 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다음, 제시문 (가)의 ㉕와 ㉖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제시문 (나)의 ㉗에 따라 제시문 (가)의 ㉕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논술하시오. (50점, 750±50자)

(가)

사람은 누구나 질 좋은 삶을 누리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때 삶의 질이 높다고 본다. 만약 우리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다면 삶의 질은 높다고 할 수 없다.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전제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 경제가 중요하다. 국가의 경제적 여건이 향상되면 국민 개개인은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충족하기가 쉬워지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 혜택과 문화생활 등을 누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국가의 경제 성장이 국민들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본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㉔**국가 경제가 국민 개개인의 직업 안정성과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마다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질은 전적으로 물질적인 풍요와 같이 객관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㉕**삶의 질**에 대해 평가할 때는 물질적 조건과 함께 스스로 느끼는 ㉖**주관적 만족도**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문화생활을 할 여가가 많을 때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고 또 다른 사람은 주변 환경 여건이 좋을 때 만족감이 높다. 이외에도 사회적 구속이나 범죄의 위협에서 해방되었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나)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든지 사람들은 일을 찬양하고 격려해 왔다.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자신의 생존뿐만 아니라 개인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생산해야 한다. 일을 하지 않는 사회, '일'이라고 하는 생산 활동이 없는 사회에서 인간은 인간으로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인간은 일을 통해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적인 삶을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은 반드시 노력을 요구한다. 노력은 필연적으로 일종의 고통을 의미한다. 고통을 피하려는 것은 모든 생물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일이 아무리 미화되더라도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에 모든 사회에서 도덕적·윤리적으로 찬미되고 때로는 신성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보통 ㉗**'일'이라고 부르는 활동**은 '작업(作業)' 과 '노역(勞役)' 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인간의 노력, 땅과 인내를 수반하는 활동이며, 어떤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전자가 자발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일 경우가 많은 반면, 후자는 타의에 의해 강요된 활동이며 단순히 반복되는 기계적인 활동일 경우가 많다. 자율적 활동의 목적이 남과 다른 나를 구현하는 것이라면, 강요된 활동의 목적은 남이 원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나은 삶을 위해 노역보다는 작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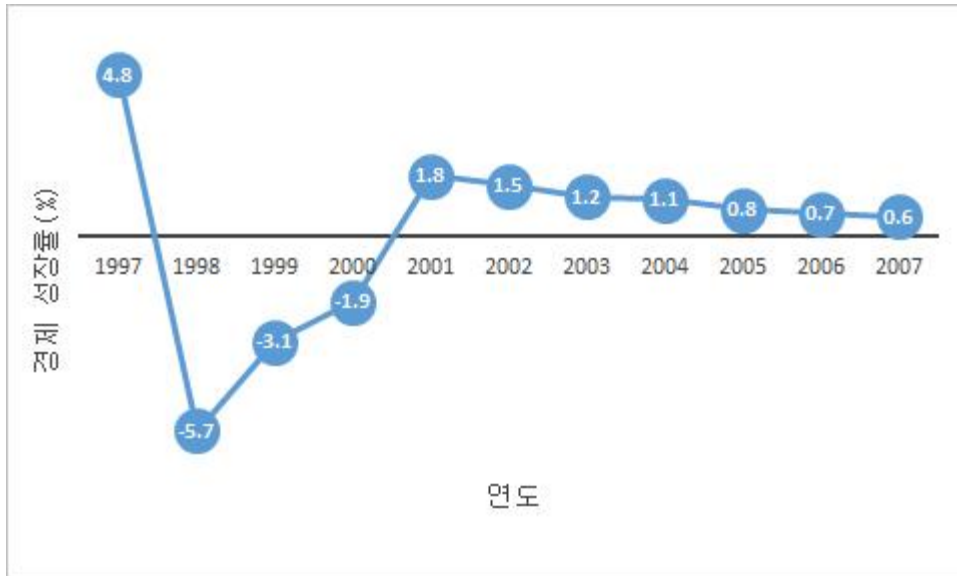
<다음 장 계속>

(다)

아래의 표와 그래프는 A국의 주요 경제 지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단, A국의 실업률과 실질소득 상승률은 당해 연도의 경제 성장률에 따라 결정된다고 가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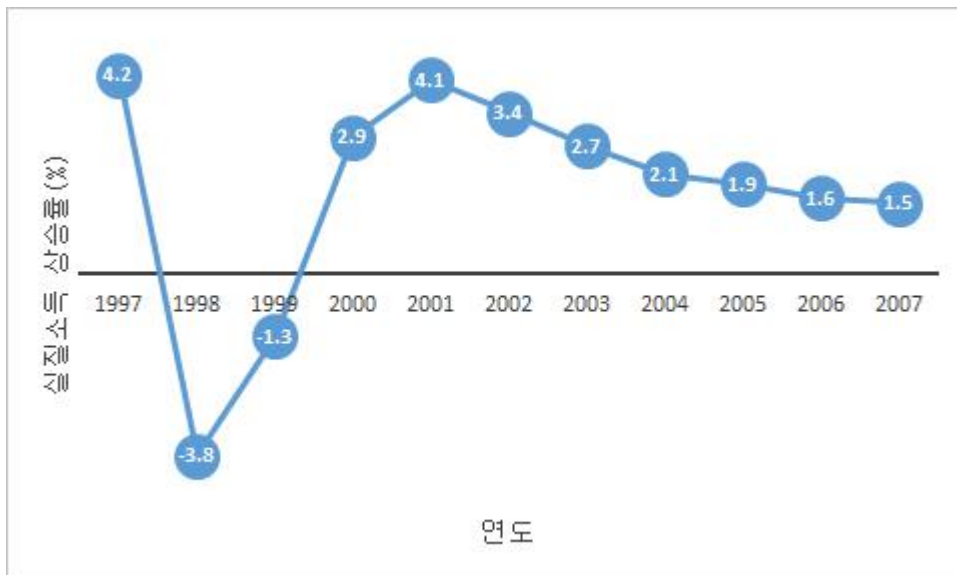
(ㄱ) A국의 경제 성장률



(ㄴ) A국의 실업률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실업률	1.9%	7.1%	4.1%	3.2%	2.1%	2.4%	2.5%	2.7%	2.9%	3.1%	3.2%

(ㄷ) A국의 실질소득 상승률



<끝>